

Q. 2013년 중순 REC의 태양광/비태양광 가격이 비슷해지는데 2013년에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인가?

- 비태양광 REC가 지속상승한 이유는 당시 기사를 확인해보면, 연말이 다가오면서 RPS 이행물량을 확보하려는 발전사업자의 움직임이 활발해졌기 때문이라고 한다.
- 비태양광 부문 REC를 확보하기 쉽지 않아서 현물 시장에서 경쟁이 치열했다고 한다.
- 태양광 REC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대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이 지연되면서 REC공급이 예정보다 줄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Ex) 40MW 영월태양광 프로젝트, 24MW 거금솔라파크 사업 준공 지연

2013년도 현물시장 거래 현황 (비태양광_일반)

거래년월	에너지원	체결건수(건)	체결수량(REC)	평균체결가격(원/REC)
13.1월	일반	21	24,336	67,349
13.2월	일반	23	29,609	82,365
13.3월	일반	22	26,107	98,374
13.4월	일반	22	29,445	119,419
13.5월	일반	22	25,820	120,937
13.6월	일반	23	28,005	116,753
13.7월	일반	40	43,948	125,641
13.8월	일반	31	42,276	131,106
13.9월	일반	32	38,257	147,824
13.10월	일반	33	46,352	179,851
13.11월	일반	31	32,715	223,026
13.12월	일반	36	41,653	241,480

2013년도 현물시장 거래 현황 (태양광)

거래년월	에너지원	체결건수(건)	체결수량(REC)	평균체결가격(원/REC)
13.1월	태양광	197	7,134	157,806
13.2월	태양광	183	3,860	160,587
13.3월	태양광	152	2,436	156,444
13.4월	태양광	108	2,815	158,770
13.5월	태양광	183	5,682	156,217
13.6월	태양광	261	6,222	158,902
13.7월	태양광	554	10,039	158,638
13.8월	태양광	555	15,648	164,560
13.9월	태양광	503	12,086	185,829
13.10월	태양광	594	15,345	220,152
13.11월	태양광	764	17,377	220,554
13.12월	태양광	665	15,214	207,587

Q. REC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이 무엇이 있을까? 왜 이 변수들이 영향을 미칠까? 아니면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되는 변수들은 무엇이 있을까?

- **유가** : 석유로 가동되는 발전설비가 많기 때문에 REC의 가격은 유가와 때 놓을 수 없다.
- **정부정책** :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시장이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에 따라 크게 휘둘린다. Ex) 과징금, 통합 시장 이후 태양광 의무공급량 제한 해제,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20%확대 정책 등
- **시기** : 연말로 향할수록 RPS 불이행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격이 오른 이력이 있다.

Q. 육지/제주, 태양광/비태양광으로 나뉘는데 육지와 제주로 나뉘는 이유는 무엇인가? 어떤식으로 나뉘는가? 어떻게 차이가 있을까? 비태양광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

- **육지/제주로 나뉘는 이유** : 제주지역은 육지와 달리 석탄화력과 원자력발전소가 없어 육지에서 전력을 송전받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육지보다 높은 SMP를 적용받는다. 특히 석유로 가동되는 발전소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유가하락에 따른 SMP 가격 변동폭이 큰 편이다. 여기서 SMP는 쉽게 말하면 한전에서 발전사들로부터 매입하는 전기의 단가이다.
- **태양광/비태양광으로 나뉘는 이유** : 태양광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제도 초기에 태양광 분야의 별도 의무량을 부과했었다. 태양광 REC 공급과잉이 되면서 태양광 REC 가격하락이 지속되었고, 16년도부터 시장 통합하였다.
- **비태양광** : 신재생에너지 중 태양광 발전을 제외한 발전. 풍력발전, 지열발전, 조력발전, 수력발전 등이 있다.